

한국청년방일단(제1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등 32명이 2026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앞으로의 일한 간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 증진과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방일단은 ‘일한 교류’라는 주제로 니가타현, 도쿄도, 지바현을 방문하여 강의 청강 및 학교 방문, 홈스테이, 각종 시찰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한편, 프로그램에서 얻은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을 SNS 등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참가자】 한국 고등학생 등 총 32명

【방문지】 니가타현 32명, 도쿄도 32명, 지바현 32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 학습):

2026년 7월 14일(화)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청 프로그램:

2026년 7월 21일(화) 니가타 공항 입국, 【시찰】 미치노에키 니가타 후루사토무라 ‘니가타현 정보 발신 거점에서 니가타의 역사와 문화 학습’, 일본 도착 후 오리엔테이션

2026년 7월 22일(수) 【예방·강의】 니가타 현청 ‘니가타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교류’, 【시찰】 JA 우오누마의 유키무로(저온 저장 창고) ‘니가타현의 쌀 재배 문화 학습’, 【시찰】 쓰바메시 산업사료관 ‘양식기와 식칼 등 지역의 전통산업 학습’

2026년 7월 23일(목) 【학교 방문·교류】 니가타현립 시바타 고등학교

2026년 7월 24일(금) 【학교 방문·교류】 니가타현립 무이카마치 고등학교,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026년 7월 25일(토) 종일 홈스테이

2026년 7월 26일(일) 홈스테이 해산식, 도쿄도로 이동, 【시찰】 고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2026년 7월 27일(월) 액션 플랜·소감 발표회,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6년7월21일 【시찰】미치노에키 니가타 후루사 토무라	2026년7월22일 【예방·강의】니가타 현청 ‘니가타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교류’
	
2026년7월22일 【시찰】JA 우오누마의 유키무로 (저온 저장 창고)	2026년7월22일 【시찰】쓰바메시 산업사료관
	
2026년7월23일 【학교방문·교류】니가타현립 시바타 고등학교	2026년7월24일 【학교방문·교류】니가타현립 무이카마치 고등학교
	
2026년7월26일 【교류】홍스테이 해산식	2026년7월27일 액션 플랜·소감 발표회

3. 참가자 소감(발체)

◆ 한국 고등학생

현지의 일본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고 함께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학생 시기에만 가능한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호스트 패밀리분들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 주신 덕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멋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니가타현 내의 여러 시찰이었습니다. 니가타현청에서 지역의 특색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눈이 녹으면서 나온 물을 이용한 벼농사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유키무로와 쓰바메시 산업사료관 시찰을 통해 지역의 기후를 생활과 산업에 활용하는 노력과 금속 가공 산업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고등학교에서 한 교류 활동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현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일본에 대한 친근감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학교 방문을 통해 일본 고등학생들과 교류하고,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일본 문화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실제 생활상을 직접 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일본 측 소감 (발체)

◆ 니가타현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 관계자

한국 청년 방일단 제1단의 여러분을 니가타현청으로 맞이하여 국제교류 직원이 ‘니가타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교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니가타의 자연과 문화, 한국과의 교류 역사 등에 대해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여러 질문을 하는 등, 방일단 여러분의 니가타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사 방문이 니가타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이후 진행될 현 내 고등학생들과의 교류에서 양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니가타현립 무이카마치 고등학교 방일단 담당 교사

방일단과의 교류는 본교 학생들에게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연결되는 기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해외 고등학생과 처음 대화를 나눈 학생들도 많았고,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전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해외에 가보고 싶다”는 목소리도 많아, 학생들의 세계가 한층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로 손을 계속 흔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에 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고등학생들의 우정이 자라나 일한 교류

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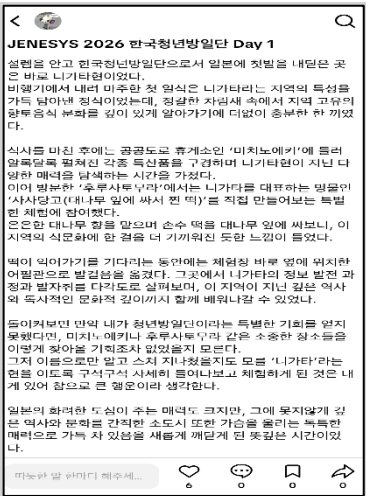
◆ 홈스테이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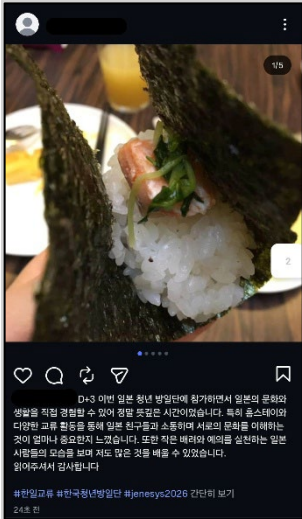
여러분 모두 매우 예의 발랐고,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어도 유창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뛰어나서 언어의 장벽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꼭 다시 일본에 올게요!”라고 말해주어 우리 호스트 패밀리들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가치있는 교류의 시간이었습니다.

◆ 니가타현립 시바타 고등학교 관계자(학생)

저는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 일한 간의 차이점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내를 할 때, 한국 분이 눈을 반짝이며 학교 시설을 둘러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부분이 많은 한편, 한국 분들도 일본을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부러움을 과거 역사의 원한이나 증오가 아닌, 앞으로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존중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5. 참가자 대외 발신(발체), 신문기사 등

 JENESYS 2026 한국청년방일단 Day 1 설렘을 안고 한국청년방일단으로서 일본에 첫발을 내딛은 곳은 바로 니가타현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주한 첫 음식은 니가타리는 지역의 특성을 가득 담아낸 정식이었는데, 정갈한 자양세 속에서 지역 고유한 향토음식 부위를 깊이 있게 알아가며 대접이 충만한 한 끼였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관광도로 휴게소인 '미치노에키'에 들러 일족일족 펼쳐진 각종 특산품을 구경하며 니가타현이 지닌 다양한 매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한 '후루사토'에서는 니가타를 대표하는 알물인 '사사강고 (비나루 앞에 싸서 찐 떡)'를 직접 만들어보는 특별한 체험에 참여했다. 온한 비나루 앞을 맴돌며 손수 떡을 대나무 위에 써보니, 이 지역의 식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책이 읽어가기로 기다리는 동안에는 재워진 비루 옆에 위치한 어릴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니가타의 정보 발전 과정과 발전추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 지역이 지닌 깊은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적 깊이까지 함께 배워나갈 수 있었다. 들어쳐보면 만약 내가 청년방일단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미치노에키나 후루사토'와 같은 소중한 장소들을 이렇게 찾아볼 기회조차 없었을지 모른다. 그저 이름으로만 알고 스치 지나쳤을지도 모를 '니가타'라는 현을 이토록 구체적·사세히 들여다보고 체험하게 된 것은 내게 있어 참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화려한 도심이 주는 매력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감미로운 소도시 또한 가슴을 울리는 특별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미치노에키 앞 야마미 해주세요...	 의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2월 21일 오전 10시에는 니가타현청을 방문하여 니가타현의 역사와 문화,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매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후 2시 30분에는 JA 오오누마의 유키무로(粟富)를 방문하여 시설을 시찰했다. 유키무로는 겨울철 눈을 저장해 여름까지 천연 냉장고처럼 활용하는 시설로, 친환경적인 저장 방식과 니가타의 지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눈을 활용해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후 오후 3시 30분에는 쓰바메시 산업사료관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양식기와 쌀 등 쓰바메시를 대표하는 전통 금속 가공 산업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일교류 #한국청년방일단 #jenesys2026
2026년 7월 21일 (Instagram) 그동안 이름만 알고 있던 '니가타현'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그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도심의 매력도 크지만, 그에 뒤지지 않을 만큼 깊은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간직하는 소도시에는 가슴을 울리는 수많은 매력이 넘쳐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Instagram) JA 우오누마의 유키무로를 시찰했습니다. 유키무로는 겨울철 눈을 저장해 여름 동안에도 천연 냉장고로 활용하는 시설로, 친환경적인 저장 방식과 니가타의 지혜를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눈을 활용해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26년 7월 25일 (Instagram)

이번 일본 방문단에서 일본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홈스테이와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일본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작은 배려와 예의를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NST니가타 종합TV)

니가타의 식문화를 통해 ‘일한 고등학생’들이 교류! 구루마후(車麴, 일본전통식재료)를 사용한 프렌치 토스트 만들기에도 도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방일단 일행이 니가타현립 시바타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류를 다지는 모습을 양국 학생들의 인터뷰와 함께 뉴스로 소개.



2026년 8월 6일 (유키쿠니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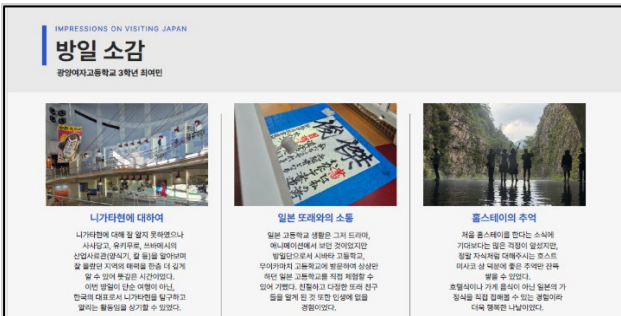
“한국 고등학생들, 무이카마치 고등학교 방문 수업과 식사를 통해 교류” 방일단 일행이 니가타현립 무이카마치 고등학교를 방문해 버디와 함께 수업을 체험하고 식사를 하며 교류하는 모습을 소개.



2026년 8월 12일 (니가타일보)

“시바타 고등학교 × 한국 고등학생, 언어의 벽을 넘어선 국제 교류! 함께 만든 구루마후 프렌치 토스트의 맛은…?” 방일단 일행이 니가타현립 시바타 고등학교를 방문해 제스처와 영어를 섞어가며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소개.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와 액션 플랜 발표(개요 또는 발제를 기재)

 방일 소감 광양여자고등학교 3학년 외화반 니가타현에 대하여 니가타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나 사사당고, 유카무로, 쓰바메시의 산업사라리(장식), 잘 화를 알아냄과 함께 일본의 지역별 특색을 알게 되었고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방일이 단순 여행이 아닌, 한일에서 느끼는 니가타현을 탐구하고 알리는 활동임을 부각할 수 있었다. 일본 토레와의 소동 일본 고등학교 생활은 그저 도키도키, 에니메이션에서 보던 것이었지만, 방일단으로서 사사리 고등학교, 이마리까지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일본 고등학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 한국 문화를 함께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홈스테이의 추억 저를 홈스테이를 한다는 소식에 기대되는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방일 자사지를 대우하는 호스트 가족과 함께 하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홈스테이 기간 동안 일본의 가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며, 더욱 행복한 나날이었다.	 액션 플랜 단계적 JLPT 자격증 취득 및 소중 지속 차근차근 단계별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실속 있게 일본어 실력을 키워드립니다. 방일 후 방일에서 만난 일본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과 문화를 공유하겠습니다. 학교 국제교류 활동 참여 및 후배 추천 저희 학교와 후쿠시마 미나미고등학교 간의 국제교류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학년 후배들에게 스피치 대회 참여와 미나미고 교류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토론회를 권장하겠습니다.
【성과 발표】 · 학교 방문 시의 교류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 니가타에서 사사당고 만들기 체험과 유키무로 견학을 통해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배우고,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했습니다. ·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 일본 가정의 일상에 직접 뛰어들어 일본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고, 나라가 달라도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 일본 지방 도시가 지닌 역사와 전통 문화의 배경에는 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액션 플랜】 · 한일 양국을 잇는 화장품·뷰티 브랜드를 창업하겠다는 꿈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일본으로 유학할 예정입니다. · 호스트 패밀리와 LINE 단체방을 만들어 한국의 일상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 일본 방문 경험을 널리 공유하고 일본을 알리기 위해 SNS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규모 모임을 개최하겠습니다. · 스포츠 트레이너로서 일본에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스포츠 산업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과 발표】 · 처음에는 일본어로 대화하는 게 자신 없어 마음대로 말을 걸지 못했지만, 학교 방문이나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실수해도 괜찮으니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 호스트 패밀리분들의 배려와 신오쿠보에서의 고 이수현 씨 추모 등을 통해 양국의 교류 역사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일본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며 일본어 실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도 배웠습니다. 【액션 플랜】 · 학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나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후배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스피치 대회와 한일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지방 도시의 매력에 대해 조사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겠습니다. · 고시히카리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명품이 된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공유하겠습니다.

실시단체명: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